

# 영농철 농가 일손부족 해소 기대

## 진안군, 농촌인력증개센터사업 공모 총 4개소 선정 'čekgi'

진안군은 농촌인력증개센터사업에 총 4개소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농촌인력증개센터사업은 농촌 일손 해소를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곳은 농사작부 농촌인력증개센터사업 공모에 2개소(백운농협, 부귀농협), 전북형 농촌인력증개센터사업에 2개소(진안농협, 부귀농협)이다.

공모 선정으로 일손 부족 병목화 현상이 초래 되는 영농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진안군에서는 현재 11개 읍·면 중 백운농협인력증개센터는 백운·마령·성수지역, 부귀농협영농조합은 부귀면을 중심으로 증개가 이뤄지고 있어 나머지 7개 읍·면의 인력증개

어려움이 예상됐던 차에 2023년 전북형 농촌인력증개센터 공모사업에 진안농협과 부귀농협이 확정되며 관내 농촌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안군은 11개 읍·면 전 지역에 걸쳐서 농가가 필요한 인력을 모집하고 알선 증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안정적인 영농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 및 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진안군에서 실시하는 농촌인력증개센터 지원 사업은 농업분야 인력 모집 및 필요 농가에 알선 증개하는 사업으로 센터운영비, 현장교육 실습비, 교통 운송비, 숙박비,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해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농촌인

력증개센터를 통해서 인력을 공급 받을 수 있으며, 센터별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농가에 알선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전적으로 내국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농촌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희망 근로자는 농촌인력증개센터에 신청하여 소정의 임금을 받고 영농에 참여 할 수 있다.

전춘성 군수는 "2023년도 4개의 농촌인력증개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력부족으로 영농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농촌인력증개센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농가에 일손부족문제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이 2일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발대식을 갖고 2023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공공산림가꾸기' 본격 추진

### 무주군, 근로자 발대식 갖고 녹색일자리 창출 통한 경제 극복 다짐

무주군이 2일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발대식을 갖고 2023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를 공공 산림 가꾸기에 투입해 2023년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있는 자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에 앞서, 지난 2일 무주읍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황인홍 군수를 비롯해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발대식을 갖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격려와 희망을 주고,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 의지를 다짐했다.

녹색일자리 창출은 총 9개 분야 근로자 105명이 참여하며, 저소득층, 장기실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공공 분야 직접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하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일자리 참여자들은 녹색일 자리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올해 사업 운영계획 및 근무방법, 사업장 안전교육을 받은 뒤 오는 6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을 비롯해 숲생태관리인, 가로수 관리단 등의 녹색일자리 업무를 시작했다.

황인홍 군수는 "녹색일지리는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0%나 되는 우리군의 경제·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침체된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산림청 등에 대해 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을 통해 산이 주는 효과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모의 필요성과 사고 없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장수군, 제104주년 3·1절 기념행사 가져

###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만세 외치

장수군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해 당시 독립만세 운동의 현장이었던 장수군 3.1운동 기념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를 비롯해 김납기 군의원, 박용근 도의원, 독립운동가 유족, 보훈단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3.1절 노래 제창, 만세시창 순으로 진행됐다.

만세시창은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이근호 씨, 권석희 씨 주도하에 진행됐으며 1919년 그날과 같이 태극기를 흔들며 한목소리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최훈식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장수



장수군은 제104주년 3.1절을 맞이해 당시 독립만세 운동의 현장이었던 장수군 3.1운동 기념공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군은 3.1 독립선언의 33인 민족대표이신 백용성 조사와 문태수, 전해산 박춘실, 김동진 의병장 등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희생하신 순국선열을 배출한 고장"이라며 "나라를 위

해 일생을 바친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예우문화 확립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기자

## 무주군, 청소년 지역문화탐방 성과 공유회 가져

무주군은 청소년 지역문화탐방에 대한 성과 공유회를 지난날 28일 무주군민의집에서 갖고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인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 지역문화탐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성과공유회는 참여팀 청소년과 청년 멘토, 학부모 주민위원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지역문화탐방을 통한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영상을 공유하고 청년멘토들과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청소년 키움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 공유하는 시간들로 진행이 됐다.

성과공유회를 통한 향후 추진 될 무



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발전 방향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이고 어울리고 상상하는 무주' 중심지라는 비전을 갖고 2023년까지 반디마을센터, 청소년마을센터 등 전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문화 교육 거점을 조성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3월 청원월례회 개최

황인홍 군수가 고향사랑기부제는 수평적인 재정확충 방안이라면서 세밀한 계획을 세워 기부금을 유치할 마케팅 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황 군수는 무주군민의집에서 열린 3월청원월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재원 확보 방안이 발생된 만큼 직원 및 군민들로 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주지역이 현재 갖고 있는 특장적이고 매력적인 자원이 무엇이고 사회공헌을 통해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

을 파악해 스스로 기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나라도 기부자를 설득하는 방안이 필요할때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마무라던 읍·면 연초 방문과 관련 황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주신 군민들을 직접 방문해 처리 계획 설명과 예산변영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3·1 운동에 대한 숭고한 의미전달 △제4차 재난지원금 및 무주사랑상품권 △베트남 출장 성과와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 △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 철저 △새봄맞이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



무주군청에서 열린 3월청원월례회에서 황인홍 군수가 청원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김관수 전라북도음식문화관광진흥원장, 진안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 "진안 떠난 출향인들 고향 발전 위해 기부행렬 동참해주시길"

(사)전라북도음식문화관광진흥원 김관수 원장이 2일 진안군을 방문 고향 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전달해 진안군 고액기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원장은 "생각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고향 진안에 대한 사랑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표현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 진안의 발전을 위해 기부행렬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말했다.

김 원장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음식을 발굴·홍보하고 전 세계에 한식 문화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으며, 한식의 명품화에 스스로 앞장서고자 현재 전주시 우이동에서 전라도 음식이야기라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문화국제협회 이사장직을 겸임하며 아름다운 우리문화를 계승·연구하고 한식문화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세계에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데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전라북도음식문화관광진흥원 김관수 원장(사진 오른쪽)이 2일 진안군을 방문,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인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 원장은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 활동에도 남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재능기부공헌 입장료를 리면으로 받아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자선

라문화공연원 개최 사랑의 극수눔 봉사활동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 릴레이 콘서트, 커피나눔기부콘서트 개최 등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자매결연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 최훈식 장수군수

최훈식 장수군수가 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 활성화를 위해 안양시, 창원시, 합천군, 인천 남동구 등 자매결연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나섰다.

이번 기탁은 출향인과 자매도시 주민 등의 고향사랑 기부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자매도시와의 교류협력력을 더욱 강화하는 의미로 진행됐다.

최훈식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으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매결연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수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을 답례로 받는 제도로 연간



최훈식 장수군수가 2일 고향사랑기부금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에 나섰다.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무료 영어교육 콘텐츠 본격 운영

진안군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자기능력개발 향상으로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진안군 홈페이지 내 무료 영어교육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

무료 영어교육 콘텐츠는 영자신문(단계별 4종), 원어민 음성, 워드 탭, 속칭 학습(듣기), 단어 학습, 동영상 강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방법은 진안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무료 영어교육을 클릭하면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해당 페이지로 접속한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형 인재양성을 위해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및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없는 교육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맞춤형 특례 발굴 투자도 선제 대응해야

김광훈 장수군의회원은 지난날 28일 제47회 임시회에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장수군에 선제 대응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광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확정으로 장수군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장수군 특색에 맞는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맞춤형 특례 발굴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통과가 가장 큰 과제이자 이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장수군의 강점인 관광 및 산림관광사업 등을 전라적으로 발굴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수군에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IT팀과 지문단 및 특례사업발굴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수군의회 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방문을 통해 우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수형특례발굴연구회를 구성해 장수발전의 위해 꼭 필요한 시책사업 및 특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장수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 휴일 근무 시행

장수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 지원을 위해 오는 4일부터 11월 말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7개소에서 휴일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유선이나 현장방문을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임대 농기계 출고는 사용 전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입고는 사용 당일 오후 4시까지이다.

장수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전 7개 읍면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수 본소는 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개 읍면은 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토요일에만 휴일 근무를 실시한다.

현재 군은 SS분부기, 퇴비살포기, 굴삭기 등 총 5종 98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대응을 위한 농기계 임대 50%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수란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농기계임대사업소 휴일 근무를 통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농기계 이용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